

GLOBAL TREND

세계지방자치동향

미국

- ▶ 보스턴 씨포트 혁신 특구(Boston Seaport Innovation District) 사례

일본

- ▶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녹색전환 금융 및 자산운용특구 - 북해도와 삿포로시를 중심으로

네덜란드

- ▶ 민생특구: 네덜란드 NPRZ의 사례

미국

- ▶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의 핵심 기회 특구(Keystone Opportunity Zone, KOZ)

영국

- ▶ 영국 정부 특구(Investment Zones)를 활용한 지역 경제성장 정책

한국

- ▶ 경제특구 세제혜택 기준과 지침의 필요성



일본 지방자치단체의 녹색전환 금융 및 자산운용특구 - 북해도와 삿포로시를 중심으로

개요

- 금융 및 자산운용특구는 개인의 자산을 투자로 유인하여 기업과 지방의 발전을 도모하는 특구임
- 성장산업 육성, 지역경제 활성화, 자산운용업의 확대 및 고도화, 개인 투자 확대를 통해 전국적 규제완화의 시범 사례로서도 기대되고 있음
- 화석 에너지 중심의 산업·사회 구조를 청정 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성장이 예상되는 산업분야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국가적 정책목표 달성과 지역 맞춤형 성장동력 확충 방안을 도모함

국가전략특별구역(특구) 지정과 지방창생

- 국가전략특구 제도는 경제성장 전략에 필요한 규제 및 제도를 개혁하여 창생종합전략의 목표인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의 규제완화와 지방세 감면을 통한 「가장 사업하기 좋은 환경」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음
-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이 어려운 「엄격한 규제」에 대해 특례조치의 정비, 관련 제도의 개혁 등을 종합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것임(内閣府)

특례 조치 창설 절차

- ① 지방자치단체, 사업자 등으로부터 제안
- ② 민간 전문가가 주도하는 특구 실무진 조사·검토
- ③ 필요에 따라 특구자문회의 심의, 각 장관의 동의 후 대응 방침 결정
- ④ 특구법 혹은 관계법령 등의 개정 등에 의해 특례조치 실현

개별 사업 인허가 절차

- ① 사업자를 공모하고 필요에 따라 전문가나 관계 부처가 분과회의를 추진
- ②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공모사업자의 회의체가 계획안을 책정
- ③ 특구자문회의가 계획안에 대해 심의하고 총리가 인정
- ④ 인·허가의 심의 결과, 규제의 특례조치 등이 활용 가능

금융자산특구와 GX(Green Transformation, 녹색전환)산업

- 일본 중앙정부는 민관협력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실현하고자 하는 ‘새로운 자본주의 정책’을 제시하였음
- 특히 일본의 가계금융자산 2,115조 엔(2023년 6월 말 기준)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현금과 예금이 증시 및 펀드, 기업투자로 전환되어 기업가치의 향상이 가계로 환원됨으로써 추가 투자, 소비 증진, 근로 소득 향상, 금융자산 소득 향상의 흐름을 창출해 「성장분배의 선순환」을 실현하고자 함(内閣官房, 2023)
- 금융·자산운용특구는 국내·해외 금융·자산운용회사의 신규 참가와 업무 확충을 통해 해외 투자자금을 도입하여 스타트업 등 성장분야에 충분한 자금이 공급되는 환경을 조성함
-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부처가 금융·자산운용 서비스의 확충 및 성장분야의 발전을 지원함(金融庁)
- 홋카이도(북해도)는 풍력, 태양열, 중·소수력, 지열 등 다양한 에너지원이 풍부하게 존재하고 있어, 전국 최고의 특구 유치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
- 또한, 향후 확대될 해상풍력발전의 잠재력이 크고, 가장 도입 목표가 높게 평가받고 있음(札幌市, 2024)
- 북해도는 2023년 5월, 「재생 에너지 해역 이용법」에 따른 촉진구역 인가에 필요한 「고정식 해상풍력」의 「유망구역」으로 다섯 곳이 지정됨
- 또한 2023년 10월, 「부유식 해상풍력」 정비를 위한 「준비구역」으로 두 곳이 지정됨



[그림 1. 재생에너지 해역 이용법 등 각지의 상황과 도입 목표]

- 중앙정부는 향후 10년간 150조 엔 이상의 GX관민투자를 실시할 계획으로 그 중 20조 엔은 GX경제이행 채권을 발행하여 재원을 조달함
- 한편, 홋카이도·삿포로시는 해상 풍력, 수소, 축전지, 해저 직류 송전망 등에 40조 엔 규모의 투자를 유치함
- 삿포로시·시부야구 스타트업 제휴 협정
- AI에 관한 실증·실장 촉진지역 설정(도로·교통관리, 대중교통, 의료, 수력 발전 최적화)
- 홋카이도·삿포로 'GX 금융·자산 운용 특구'의 개요
 -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활용한 GX산업의 집적과 금융기능을 강화
 - GX사업정보나 투자정보 등을 집약, 사업자와 투자자를 연결하는 GX정보에 관한 플랫폼 「(가칭) Sapporo-Hokkaido Green Hub」를 구축
 - 신기술이나 이노베이션을 창출하는 「스타트업의 창출·육성」, GX산업을 지원하는 「인재 확보·인재육성」을 강화
 - 넓은 토지를 활용한, 「AI에 관한 실증 및 시범사례 촉진 지역」을 설정함(札幌市, 2024)

홋카이도·삿포로시의 특구지정 제안과 지방세 우대

- 금융기능 강화·집적을 위한 중앙정부에 대한 제안
 - 재생에너지 등 GX 사업의 안정성과 성장성을 감안하여 사업 그 자체의 가치를 담보화하는 Green Mortgage 제도 창설
 - ※ 풍력 발전 등의 수익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제적인 펀드·투자자 등에 의한 출·유자를 활성화
 - 은행업 고도화 등 GX 산업 관련 규제 완화 등 검토
 - ※ 금융기관(신용금고 등 포함)이 출자해 사업을 육성, 공동 경영이나 사업 성장 시 추가 출자 등으로 투자 유치
 - GX 산업 관련 시설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일부 보조금 적용을 제외시켜 보조금 취득과 시설의 담보 제공을 가능하게 함
 - GX 사업체인 중소기업이 보증협회를 이용한 자금 조달 시 GX 사업과 관련된 장비 자금 등에 대한 무담보를 명시한 새로운 보증 제도를 정비함(札幌市, 2024)
- 홋카이도·삿포로시의 GX금융·자산운용특구는 외자계 금융기관이나 GX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 시민세와 고정자산세 감세 등 지방세 우대가 특징임(朝日新聞, 2024)
- 홋카이도의 스즈키 나옴치 지사는 도의회에서 중앙정부의 금융·자산 운용 특구의 지정에 따라 “삿포로시와 제휴해 설비 투자에 있어 지원되는 부동산 취득세, 경영지원이 되는 법인 사업세 등 GX산업 집적 등에 기여하는 항목의 우대를 검토하고 있다”고 밝힘(日本經濟新聞, 2024)

시사점

- 기시다 총리의 “새로운 자본주의 정책” 실천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관계를 통한 새로운 공모방식을 도입
- 홋카이도와 삿포로시는 지역의 기존 자원 및 시설을 활용함과 함께 신사업(GX 및 금융분야)을 위한 플랫폼으로써 일본 재생에너지 공급기지, 아시아 세계금융센터를 설치함과 동시에 가칭 Sapporo-Hokkaido Green Hub를 구축할 예정임
- GX금융·자산운용특구와 국가전략특구를 연계하여 규제 철폐와 그에 따른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책을 제언함
- 북해도 내 GX 사업에 필요한 해외 투·융자 추진, 금융 기관 신용 확충, 사업의 개발 및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규제 완화를 제언함
- 상업등기, 체류자격 등 법인 설립에 관련된 각종 절차에 있어 영어만으로 행정 수속 가능한 법령을 개정, 각종 절차에 있어 영어 지원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한 원스톱 센터 설치를 제언함
- 특구의 연계를 통해 적용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사업에 관한 인센티브 적용은 한국에 시사점이 큼
- 특히, 당해 사업에 따른 지방세 감면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간의 소통은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관리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임

참고문헌

- 朝日新聞.(2024.01.23.).札幌市が「GX金融特区」を国に申請 法人市民税などの減税策が柱.
- 金融庁.<https://www.fsa.go.jp/news/r5/sonota/20240116.html>(검색일:2024.8.28)
- 札幌市. (2024).北海道·札幌「GX 金融·資産運用特区」提案説明資料, 札幌：札幌市
- 資源エネルギー庁(2023).洋上風力発電に関する国内外の動向等について, 東京：資源エネルギー庁
- 内閣官房. (2023).資産運用立国実現プラン, 東京：内閣官房
- 日本経済新聞. (2024.6.21.). 北海道, GX企業に不動産取得税の優遇検討 特区指定で